

금남로에서



장 필수 논설실장

전남에 국립대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는 30년도 더 된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것이 시초이니 정확히 말하면 34년 된 숙원이다. 전남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전남도는 상급병원이 없어 '응급실 뱅뱅이'와 '유행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을 들어 정부에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정치인들의 소지역주의 경계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이 급물살은 탄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맞물리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움직임을 보이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바빠 움직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통합 의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월에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대학을 방문해 두 곳의 캠퍼스에서 의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 열린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이후 '단일 의대'로 방향 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김 지사의 국립 의대 설립 건의에 윤 대통령이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지면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은펜칼럼



임 명 재 약사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은 전국적인 승리였다. 물론 일부 퇴행적인 지역에서 정에 반하는 투표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항상 한민족의 유구한 존립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의 민심은 단연코 자부심을 가질만한 결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단순히 총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 국권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워낙 실정을 많이 저지른 탓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검찰 개혁이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 권력에 의해 탄압받았고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이

기 고



나 양 기 농학박사 전남도 종자위원회 부위원장

사면이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2층 원두차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배꽃, 유채꽃, 희고 빨강분홍의 철쭉, 그리고 핑크빛의 복숭아꽃, 사과꽃 등등... 자연은 참 신비롭다. 속살 과육이 흰매는 꽃도 희다. 사과꽃 역시 과육이 맑은 사과인 '홍로', '후지', '무비에스' 품종 등은 하얗다. 그러나 속살이 빨간 사과인 '파이어크러커' 품종은 꽃도 붉은색에 기깝다. 빨간 열매의 대명사인 석류 역시 유난히 황금미처럼 검붉은 알맹이의 석류는 일반 석류꽃보다 훨씬 짙은 빨간색이다. 꽃 색깔이 다르다. 우리 모두가 가을이면 맛있게 먹는 감의 경우 과실 모양에 따라 종자 형태가 다르다. 가장 많이 먹는 '부유(일명 진영단감)' 품종의 종자는 약간 동그스름하고 납작하다. 그러나 길쭉한 모양의 홍시로 먹는 뽕은 감 '대방'의 종자는 길쭉하며 납작하다. 뒷색과 종자만 보고 어느 정도는 과일 색깔과 모양을 알 수 있으니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해법을 생각한다

곧바로 단일 의대를 전제로 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역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라"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전남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가 단일 의대인 마련을 위해 공모 방식을 제안한 것은 이런 교육 정책의 결과다. 그런데도 목포와 순천에서 순차적으로 전남도 공모 방식을 믿지 못하겠다며 단독 추진 목소리가 나온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며칠만에 목포에선 공모 수용으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순천에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에 단독으로 신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에 이어 18일 김 지사와 만남에서도 전남도의 공모가 법적 권한이 없고 동시간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독자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순천대 입장을 지지했다. 당사자인 대학들이 자기 대학에 유치하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백보 양보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 지역에 의대를 유치 하겠다는데 뭐라 할수는 없다. 다만 대중적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 상생 방안을 찾길 바랄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순천권의 독자 추진 움직임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소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정부가 사실상 전남도에 결정권을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남은 쟁점은 전남도의 선정 방식인데 전남도는 공정화 외부 심사기관을 선정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대와 지역 정치권은 아마도 김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 전남 서남권이라는 점을 들어 공모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나 싶다. 그들의 의심대로 만약 김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릴만큼 김 지사가 어리석은 초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욕심이 문제다. 순천대의 독자 추진 결정 배경에는 순천 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 노관규 시장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순천 단독 유치'를 주장해 왔다. 아무리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하지만 소지역주의는 전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다.

전남도 공모에 맡겨보자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맞물려 맞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포함시키려면 물리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지역내 갈등으로 의대 설립이 물 건너 간다면 34년 숙원을 물거품으로 만든 책임은 오롯이 지역 정치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할때 '중요하면서 급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요한 일인데도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을때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경계한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동안 전남권 국립 의대 문제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치부해 온 것은 아닌지라고. 이제 누구나 아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되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적 순가락을 얻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공정한 공모를 전제로 전남도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다. 어느 한 곳은 선정에서 탈락하겠지만 의대를 보충할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르기까지는 정보기관과 군인 권력에 뒷받쳤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검사에 의해 퇴행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목숨을 잃고 피흘리고 삶을 희생하며 지켜온 민주주의가 어떻게 검사들에 의해 후퇴될 수 있겠는가. 검사는 그대로 선발전 집단이고 공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조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화되고 사적이익에 집착하는 집단이 되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검사와 경찰들에 의해 사회적 공정이 유지되고 그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었다.

지방검사장 선출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국 대표가 공약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한데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마치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면서 나쁜 짓도 함께 하도록 강요하는 문화는 퇴출시켜야 한다. 최소한 판사처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들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들에 의해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을 특채해서 미국의 FBI와 같은 경찰과 분리된 좀 더 고도화된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경찰이 처리하기 힘들거나 전국적이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을 설립해서 검사는 조사된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피의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단위의 검찰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조직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들의 기소 내용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검사의 재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사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조직과 기능을 좀 더 확대 시킬 필요도 있다.

두 번째 개혁과제는 언론이다. 언론을 보면 참으로 해괴하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의 기조가 바뀐다. 이게 말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후진국이다. KBS나 MBC와 같은 공중파를 비롯해 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언론사들의 대표는 각 언론사 구성원이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를 정부는 무조건 승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각의 언론사가 공정함을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왜 낙하산 대표를 앉히려 관리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사는 꾸준히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공정성과 비판과 견제의 임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토록 지지하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4년 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만약 훌륭하게 완수한다면 정치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봄나물과 도시락의 행복

자연은 참 신비롭다. 광주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인 나주 금천에 선전끼서 물려주신 과일농장이 있다. 연구직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근무하다 퇴직 후 50여년 된 배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시험연구포장의 품종전시포처럼 1000여평에 사과, 배 등 18 종류의 과일 82개 품종을 심었으니 많은 지인들이 농장에 놀러와 감탄한다. 혼자 어떻게 이 많은 품종의 나무를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경영연구원 소속 전문위원으로 강의 하라, 최근까지 도단위 농업관련 협회 회장에 많은 소속위원회 활동, 또 유일한 취미인 골프 등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놀람 속에 혼자만 관리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

그 비결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정답은 다양한 과종과 다양한 품종에 답이 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선 과일나무 혼자 스스로 서 있지 못하거나 딱 시설을 해야 하는 배나 포도 등은 최소로 심어 시설비를 줄였다. 두 번째는 배나 사과, 감 등 한가지 과종에 한 두 품종만을 심으면 목돈 수입은 되겠으나 혼자 작업관리가 너무 힘들다. 서로 겹치는 시기와 수확시기가 다른 품종을 심어 일시 작업 노력을 분산하였다. 예를 들어 단감 품종만 해도 최근 가장 핫한 신품종인 대과이면서 연한 '감풍' 등 8개 품종이 있다. 또 다양한 과종을 심음으로써 특정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배 작업을 하다 싫증이 나고 지루하면 키위 작업을 하고 사과 작업을 하다 쉬고 싶으면 감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의 지루함을 덜 수도 있다. 과종과 품종이 다양한 덕택에 학생들의 현장 실습 포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추세에 맞추어 GAP(우수농산물) 인증과 로컬푸드 인증까지 취득을 하였다. 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내어 도시락을 가져와 농장가 장자리에 가져와 앉아 있는 두루, 취나물, 방풍, 미나리, 오갈피, 연나무, 부추, 개숭마 등 여덟가지 나물을 2-3개씩 채취해 데친 후 초장에 찍어 먹으며 원두막의 창밖을 보니 너무 맛있고 힐링이 된다. 보약을 먹는 기분이다.

창밖 사과나무의 꽃이 눈에 들어 온다. 올해도 걱정이다. 홍로는 꽃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사과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후지' 품종의 꽃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걱정이 되어 사과를 재배하는 몇몇 지인과 통화를 해보았더니 작년 초여름 일조량 부족으로 특히 '후지' 품종의 꽃눈이 별로 없다고 한다.

기후 위기로 전세계 소득이 2050년까지 20%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14%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독일연구소 보고가 떠오른다. 올해도 금사과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 맛있는 밥맛이 갑자기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 일까. 올해는 꼭 풍년이 들고 고시리를 한번 더 해야겠다.

社說

대한민국 미술축제, 광주 문화관광 전인할것

을 가을 광주와 서울,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가을 미술축제를 한데 엮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오는 8월부터 12월 사이 광주·서울·부산에서 열리는 미술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기반시설, 숙박, 투어상품 등 관광 편의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종합 홍보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부산비엔날레(8월 17-10월 20일)와 광주비엔날레(9월 7-12월 1일)를 비롯해 프리즈 서울(9월 4-8일), 서울 아트위크(9월 2-8일)가 열리는데 미술행사라는 공통분모 아래 'K-Art Festival'이란 이름으로 국내외 관광객

을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자치단체 외에 전국대중공연장,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을 예정인데 광주 입장에선 문화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는 대한민국 최초 비엔날레로 국제적인 위상을 다져왔지만 부산비엔날레 등 광주보다 큰 메가 시티의 미술축제에 밀려 갈수록 외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때마침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상상 프로젝트를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다. 대대적인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해외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 광주시는 정부나 공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점검 등 자체적인 준비와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한수원, 원전 수명 연장 위해 주민 회유라니

고창군과 영광군 농민회 회원들이 그제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람 조장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공정성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회는 "한수원 직원들이 고창과 영광 등지에서 주민들로부터 대필서명을 받고, 선물세트 등 지급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1·2호기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 참여율을 높여 원전 수명연장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농민회가 문제제기한 대필서명을 있을 수 없고, 찾아가는 공감 행사의 일환이라며 '찬성 회유 목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변경 최대 30km)에 있는 영광·

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 6개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평지역 주민공람이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난 1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무리했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6개 지자체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목표 시점을 3년 뒤인 2027년 6월로 설정했다. 농민회와 주민들은 절차상 원전을 1~2년 가동중지 했다가 수명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공람을 마친 영광 주민 710명 가운데 166명은 '주민의견 반영'과 '안전성 최우선'을 바라고 있다. 한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주 배 농가가 요즘 울상이라고 한다. 배는 과일나무 특성상 수술의 꽃가루가 안술머리에 묻게 하는 '수분'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배꽃 개화기에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이 사라지다보니 배 농가들이 양봉 농가에서 직접 꿀벌을 사오거나 비싼 인공수분 방식으로 배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꿀벌이 사라진 원인으로서는 지구 온난화가 꼽힌다. 영국 레딩대 크리스 와이버 박사팀은 지난 40년 간 호박벌 같은 야생 꿀벌은 자신의 책 '불편한 진실'에서 기후위기를 고발한다. 빙하가 녹고 바다가 따뜻해져 오는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국제학술지(생태 및 진화)에 발표했다.

와이버 박사는 꿀벌의 겨울잠이 끝나는 시기와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을 밝혀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꿀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꽃가루와 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사는 "그런데 이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꿀벌은 효과적으로 꽃가루받이를 할 수 없고 자연적인 꽃가루받이가 줄

어다면 농민들이 양봉 꿀벌을 이용해야 하고 그 비용을 증가시켜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힘들어진 게 비단 꿀벌 뿐일까. 예상했던 시기에 벚꽃이 피지 않자, 강원도 속초시는 얼마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고 읍소하던 "그래서 영광호 빛꽃축제 두 번 합니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기후변화 전도사'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책 '불편한 진실'에서 기후위기를 고발한다. 빙하가 녹고 바다가 따뜻해져 오는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국제학술지(생태 및 진화)에 발표했다. 와이버 박사는 꿀벌의 겨울잠이 끝나는 시기와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을 밝혀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꿀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꽃가루와 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사는 "그런데 이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꿀벌은 효과적으로 꽃가루받이를 할 수 없고 자연적인 꽃가루받이가 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52	예 행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220-068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